

달나라
사람

이윤혜의
춤

섬에 달이 조용히 내려와 놓네

바다를 덮고 있는 그곳

태고적 고요가

내가 여기 있는 것 까지도 잊었네

내가 걸어왔던 길 까지도

섬 그늘에

2005년 10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우리의 혼이 살아 있는 숨쉬는 아름다운 무대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좋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우리 춤꾼 이윤혜님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부산시민들과 항상 함께 하는 우리 부산시립무용단의 훈련지도자로, 선배로 언제나 단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땀 흘려온 이윤혜님의 춤관은 이번 가을의 어느 공연보다 훌륭한 무대가 될 것 입니다.

지난여름 내내 연습실에서 땀 흘리며 가을 무대를 준비한 이윤혜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전통을 잇는 전승 작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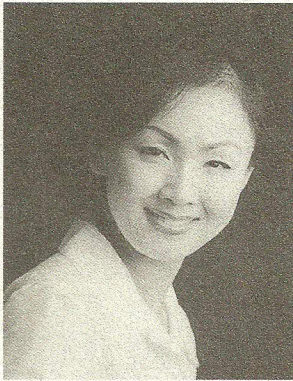
단아한 춤사위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춤의 깊은 맛을 살려내는 진짜 춤꾼으로 오래도록 우리 춤의 맥을 이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이 우리 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5일

부산문화회관장 조병규

춤을 추게 되면 다시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며 젊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 신라대학 무용학과졸업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 제3회KBS무용콩쿨 대상수상
- 86년 아시안게임 개 폐회식 문화행사 지도
- 97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 "성화불당김" 보조안무
-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성화체화 - 금강산 옥류봉
- 안무
유채색으로 빚어진 빗살무늬,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후...
0.75평의 자유
2004여름마당춤판 "제비춤"
- 주역출연 작품
강과 바람과 새,
사랑이여 하늘이여,
다시자갈치,
나눔의 춤50년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바람이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늘 춤추어 왔지만 올 가을에는 더더욱 간절히 춤추게 합니다.

저의 인생을 감히 춤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다고 말을 해봅니다.

매일 숨을 쉬며 호흡하듯

춤은 저에게 큰 희망이자 안식처이며 종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춤은 이미 저의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춤은 저의 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만족할만한 춤을 추는 것은 저에겐 영원한 숙제입니다.

30년 넘게 춤 취하면서

늘 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던 저의 첫 공연을 아주 조심스레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과 춤, 지내온 삶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취했던 춤, 힘들 때나 즐거웠을 때도 늘 함께 한 춤, 계속 춤 출 것입니다.

용기주신 많은 분들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무용단 식구들이 있기에 공연을 더 준비하는데 더욱 큰 힘이 되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쏟지 못한 애정까지 대신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5년 10월 5일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 이윤혜

이윤혜의 춤

1부

산조춤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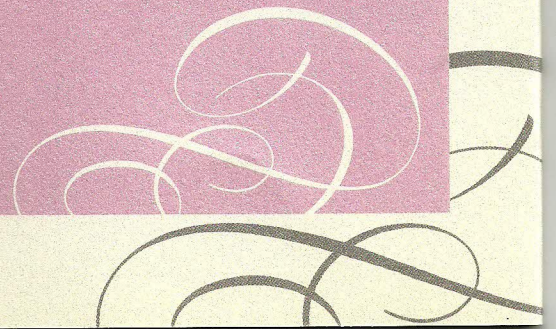
살풀리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처용무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2부

달과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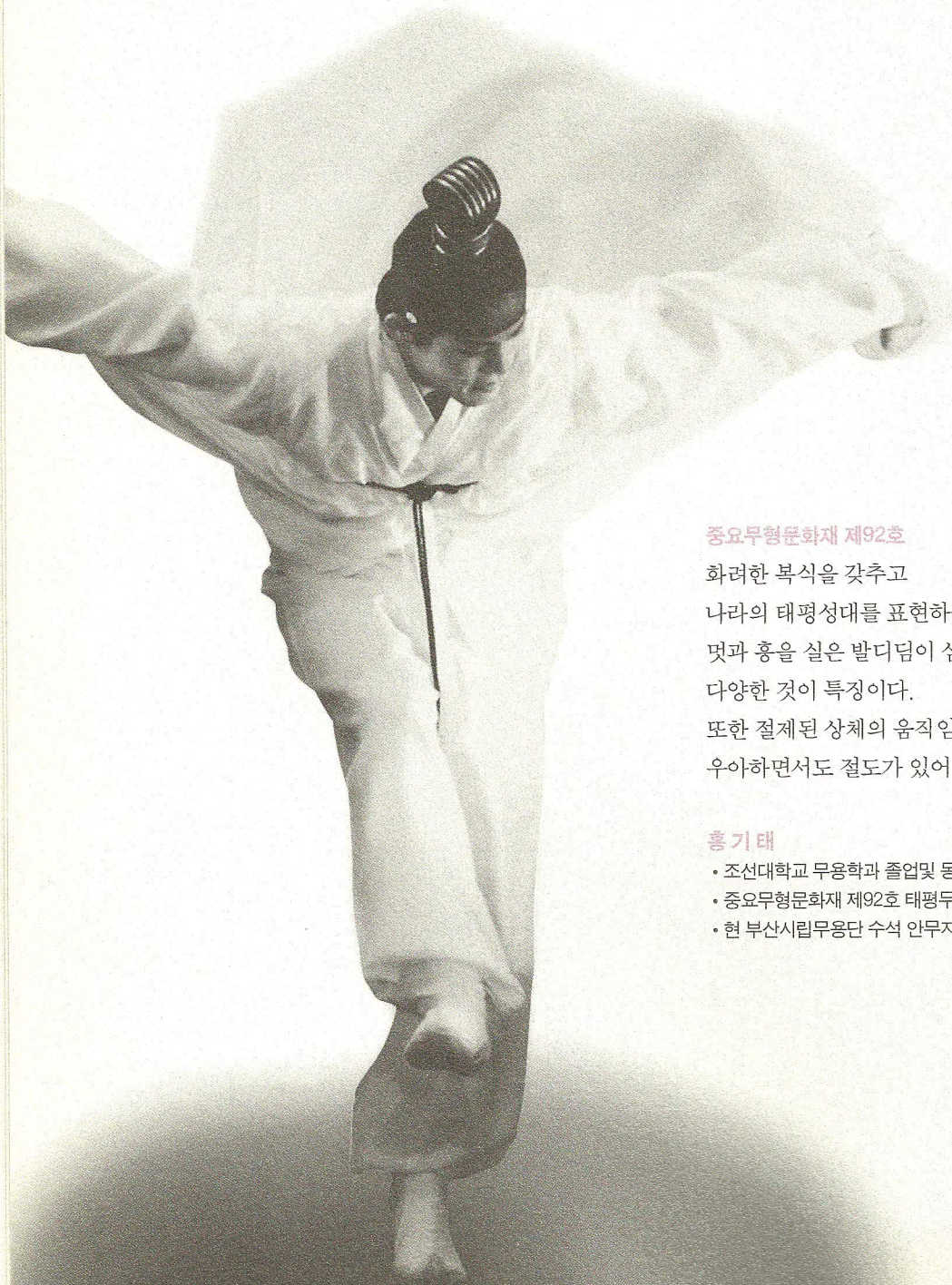


산조춤

이 춤은 산조 음악에 맞추어 추는
실내음악의 홀춤으로
그 음악이 우조와 평조,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엇박의 묘미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춤위 역시 우조의 편안함과 평조의 안정감,
계면조의 섬세한 맛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그 특징이다.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춤으로

멋과 흥을 실은 발디딤이 섬세하고 민첩하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과 섬세한 손놀림이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그 멋을 더한다.

홍기태

- 조선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취득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 현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은 원래 남도정무의 계통으로서
'굿'에서 과생된 무속에 속하는 것으로
무당이 추던 즉흥무의 특유한 무무(巫舞)였으나
민속춤의 하나로 발전해 오면서
정중동의 묘미를 잘 살린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무이다.
이 춤은 얽히고 설킨 한을
달래고 풀어내는 듯한 구슬픈 가락과
하얀 명주수건이 허공에 그려내는 동선이
그 백미이며 슬픔을 정화시켜
승화시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살풀이춤



처용무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신라49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에서 유래된 가면무이다.

처용무의 복식은 오행의 원리로 다섯 가지의 만물

즉, 나무, 불, 토양, 쇠, 물을 조성하는 원리로 각각 청, 홍, 황, 백, 흑을 상징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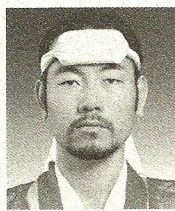
청색은 동쪽(봄), 적색은 남쪽(여름), 황색은 중앙, 백색은 서쪽(가을),

흑색은 북쪽(겨울)을 나타내며 이는 곧 유요의 인, 예, 신, 의, 지를 의미한다.

이 춤은 종교적 상징으로 모두 자신이 맡은 방위를 지켜

빈틈을 노려 언제 침입할 지도 모르는 잡귀를 감시하는 의미로

마주보거나 등을 대는 춤사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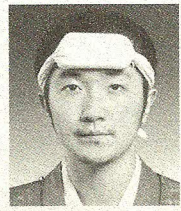
김기원



이창규



허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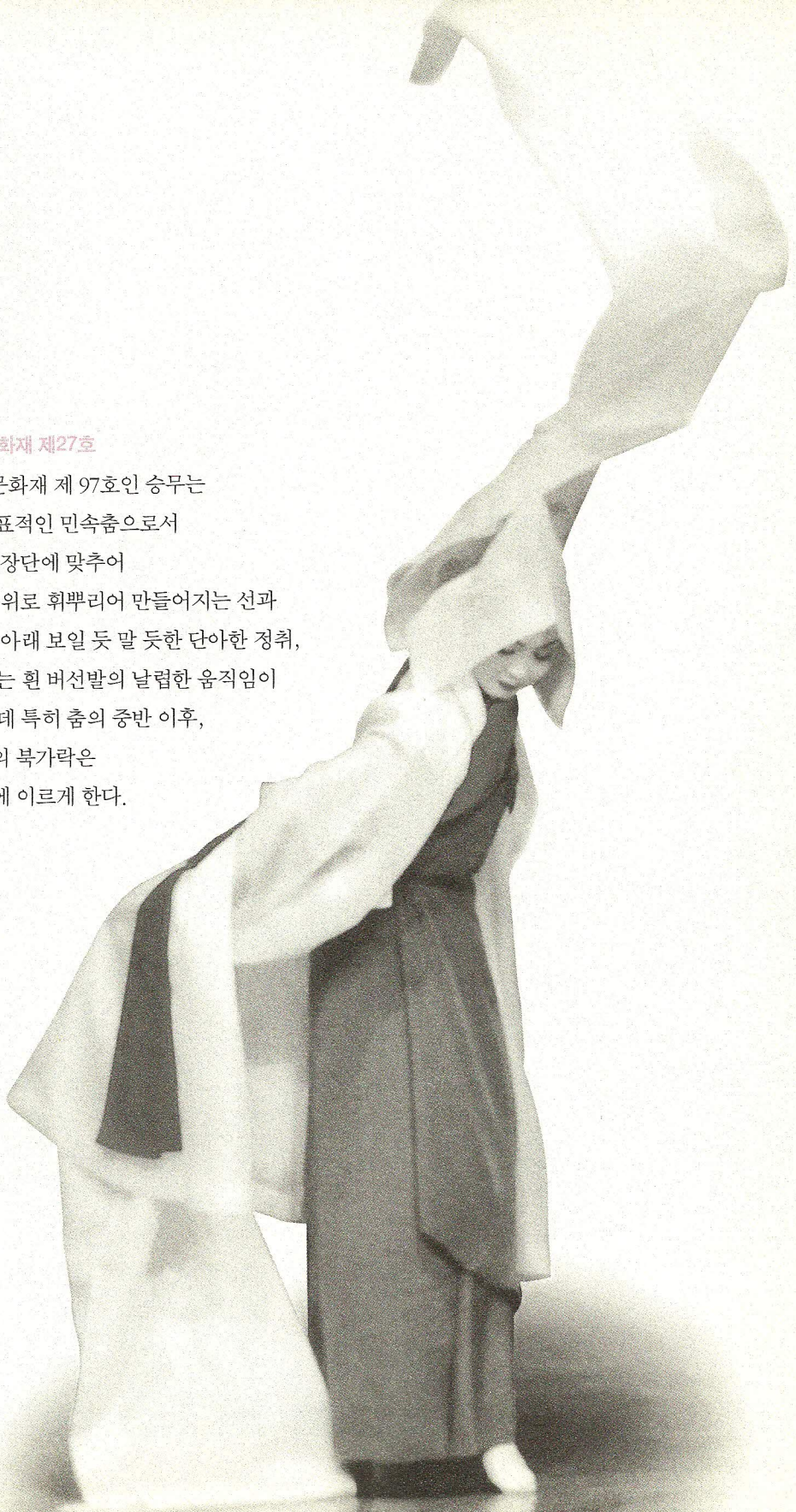


최익욱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인 승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서
느린 염불 장단에 맞추어
긴 장삼을 위로 휘뿌리어 만들어지는 선과
하얀 고깔 아래 보일 듯 말 듯한 단아한 정취,
사뿐히 걷는 흰 버선발의 날렵한 움직임이
그 특징인데 특히 춤의 중반 이후,
범고놀이와 북가락은
몰아지경에 이르게 한다.



달과 섬

달빛은 물위에 내려와
시름의 바다 흰히 비추고
어둠은 가만히 다가와
그 목은 아픔 내게 안기고
난 오래 전부터 여기 이렇게
혼자 깨어 있었네

그대가 눈치채지 못하고
나도 어찌지 못한
다만 내 외로움
내 외로움 때문에 나는 슬펐다
누구나 마음속에
껴안을 수 없는
사랑 하나씩 안고 산다는 것을...

당신의 가슴에 저무는
한 점 섬이고 싶었던
내 마음 그리하여
내 무덤에는 그리움만
소금처럼 하얗게 남게 될것을

과도소리에
날 저무는 것 까지도
달 기우는 것 까지도 잊었네
달을 보며
내가 사랑했던 것 까지도
내가 용서했던 것 까지도 잊었네

섬 그늘에
내가 걸어왔던 길 까지도
내가 여기 있는 것 까지도 잊었네
태고적 코요가
바다를 덮고 있는 그곳
섬에 달이 조용히 내려와 놓네

1. 달 기울다
2. 홀로 부유하는 섬
3. 달, 섬에 놓다

작품의도
사랑하여서 아픈 어인의 애린...
여성으로서 절대 고독의 내면적 아픔을
섬의 이미지와 치환하여 그려내고
달의 차고 기우는 순환 상생의 여성적 끈도(坤道)의 길,
물로서 씻김하고 다시 나를 비우는
텅 빈 충만의 세계를 춤으로 형상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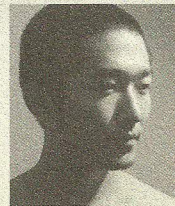
이윤희



정진희



김미란



최익욱

악·사



김경
 • 서울전통타악진흥회
 부산지회장
 •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



최오성
 • 서울전통타악진흥회
 사무국장
 •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 가·무·악의
 공유 단장
 •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지경
 • 가·무·악의
 공유 단원
 •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중희
 • 가·무·악의
 공유 단원
 •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대학원 재학



이정은
 • 가·무·악의
 공유 단원
 •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신재현
 •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 전국국악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스·텝



황혜순 대본·연출



최찬열 드라마트루기



백철호 무대 미술



서상환 음악편집



김효은 의상

도움주신 분

이준우 주식회사 모닝시 대표

효영산업 울산시 동구 방어동 1381번지 현대미포조선 내 T. 052) 250-6964 대표 **맹인영**

미래특허정보 컨설팅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916-16 상아빌딩 2층 T. 02) 877-4446 대표 **김덕황**

밀레니엄Hits 부산시 민락동 수변공원 내 밀레니엄회센터 5층 T. 051) 755-0005

이장수 사진작가